

보도시점 2025. 3. 12.(수) 10:00 (2025. 3. 12.(수) 석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최

퇴직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2025.3.12.(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한자리에서 20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사업자 감독·검사 방향을 함께 설명하였다.

아울러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퇴직연금 현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업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였다.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개요

- ☑ **일시** : '25. 3. 12.(수) 10:00~11:30
- ☑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 ☑ **발표내용** : ①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방안(충북대 장덕진 박사)
② 2025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
③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감독·검사 방향(금감원 연금감독실장)
- ☑ **참석자** : 고용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장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 연금감독실장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등) 및 협회 관계자 200명 내외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발언 요지 】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 말씀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퇴직연금이 제때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과 부족분 납부를 안내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요 당부 및 협조 요청 사항】

☑ 성과 경쟁을 통한 수익률 향상

- 디폴트옵션 비교 공시 항목(상품별 적립금 비중) 추가, 상품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상품관리 및 가입자 안내 철저
- 수익률 지표 강화, 우수사업자 공개 범위 확대 등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성과 경쟁 환경 조성
- RA 투자일임 시범사업 모니터링, 성과 관리 및 가입자 안내 철저

☑ 가입자 알권리 및 서비스 질 제고

- 연령·투자성향 분석 등을 통해 고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 성과 연동 및 업무 구분 수수료 체계 작동 여부 점검, 추가 개선 논의
- 충분한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 방법 안내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철저

- DB·DC 미납 부담금 현황 파악 및 납부 안내·독려
- IPS 작성 대상 사업장 적극 컨설팅으로 수익률 제고하여 적립금 납부 부담 완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활성화

【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 발언 요지 】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 투자를 유도하여 고객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였다.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 및 당부 사항】

☑ 감독 :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의식 강화

- 실적배당상품(펀드) 비교공시 신설 및 총비용부담률 산출기준 개선 안내
- 실물이전 서비스 범위 확대 관련 협조 요청(사전조회, DC→IRP 실물이전)
- 사용자의 보수적 DB 운용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 당부
- 디폴트옵션 지정률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가입자 안내 강화 당부

☑ 검사 : 근로자 수급권 보호 및 신규제도 조기정착 지원

- 디폴트옵션,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운영 실태점검 실시
- 근로자 수급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관행 검사 실시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점검 요청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 향후에도 현장감 있는 정책·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연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 책임자 | 과 장 | 김부경 (044-202-7554) |
| | | 담당자 | 서기관 | 이상전 (044-202-7657) |
|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 책임자 | 실 장 | 이동규 (02-3145-5180) |
| | | 담당자 | 팀 장 | 김윤조 (02-3145-5190) |

